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12. 2

11월 한국 수출:
반도체 vs 비반도체 수출 격차 심화

경제/중국 | **백관열** | kyb1006@ls-sec.co.kr

반도체로 버티는 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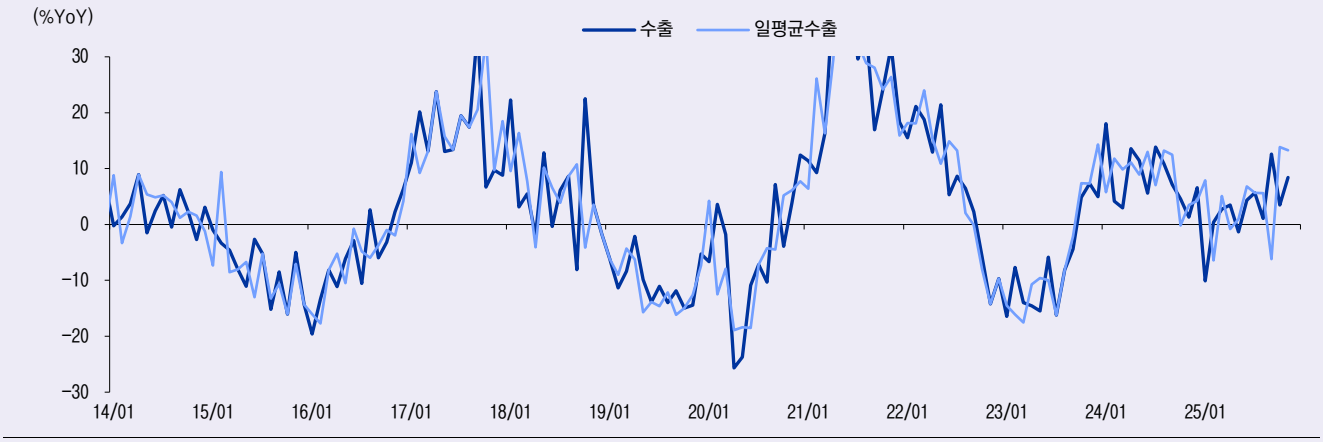
11월 한국 수출 증가율은 +8.4%YoY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동시에 1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13.3%YoY를 기록하면서 역대 1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으며, 1~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작년 연간 수출액을 상회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6개 품목이 플러스 기록했으며, 이번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한 모습.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가속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 및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38.6%YoY 증가하며 고공행진 지속.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은 전월 대비 둔화폭(-2.7%YoY → -4.1%YoY) 확대.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1)관세 불확실성 완화, 2)업황 성수기, 3)기저효과로 반등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가속에 기여

국가별로는 10월에 조업일수 축소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던 아세안향 수출이 반등했으며, 중국향 수출 기여도가 유의미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 특징.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광군제 영향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에 따른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향 수출은 -5.2%YoY → +6.9%YoY로 반등. 미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영향을 극복하지는 못하면서 보합세. G2향 수출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출을 주도 있는 국가는 아세안을 비롯한 기타 국가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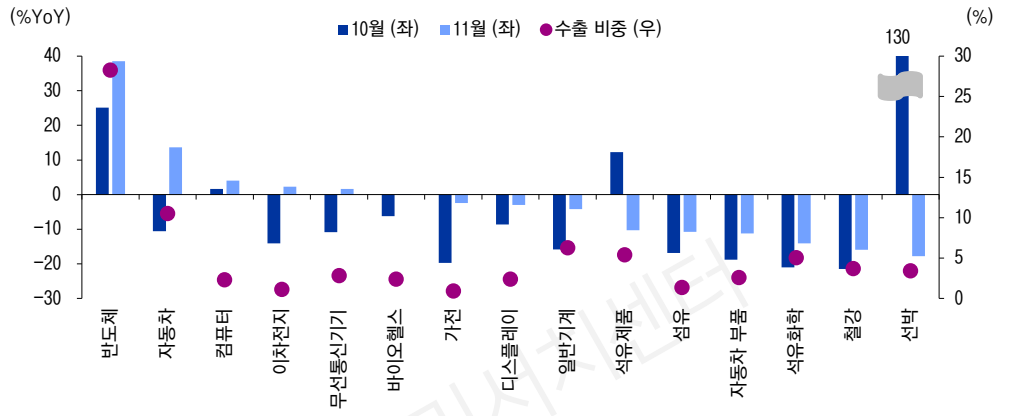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반도체 수출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과도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 증가율 측면에서 2026년에 반도체 수출이 높은 기저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혹은 非반도체 품목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걸어야 하는 국면인 것으로 판단

그림1 **한국 11월 수출 +8.4%YoY,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3.3%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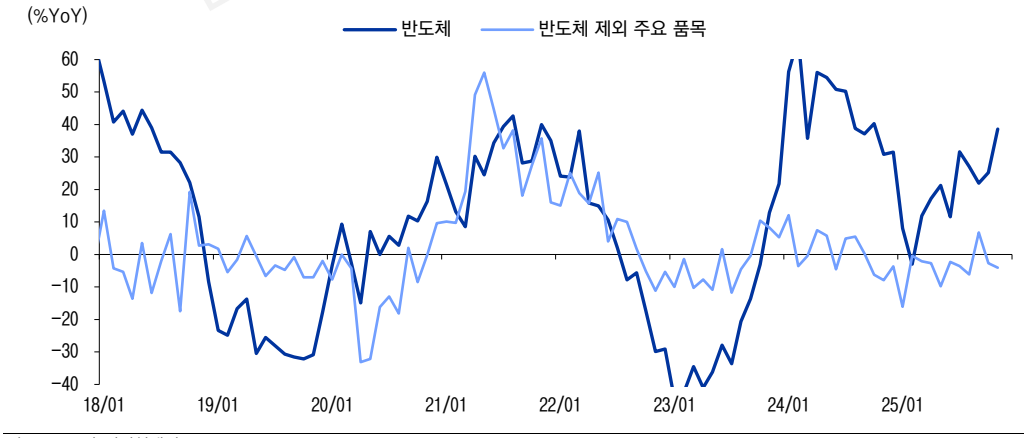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품목별 수출. 15 대 주력 품목 중 6 개 품목이 플러스 기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반도체 및 非반도체 수출 증가율 괴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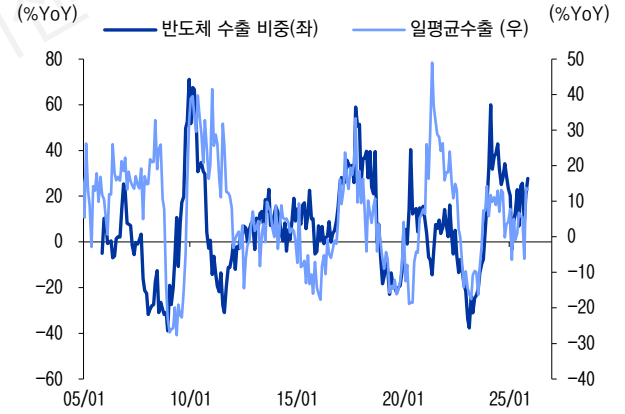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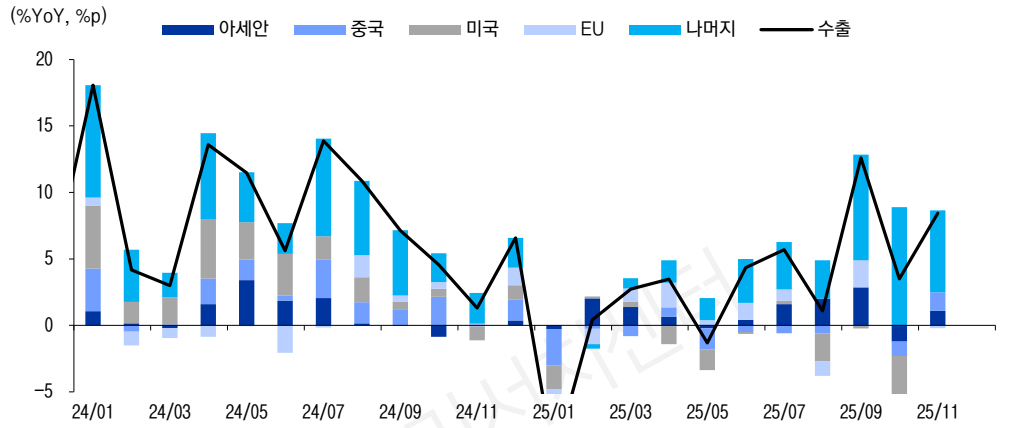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과해진 한국의 수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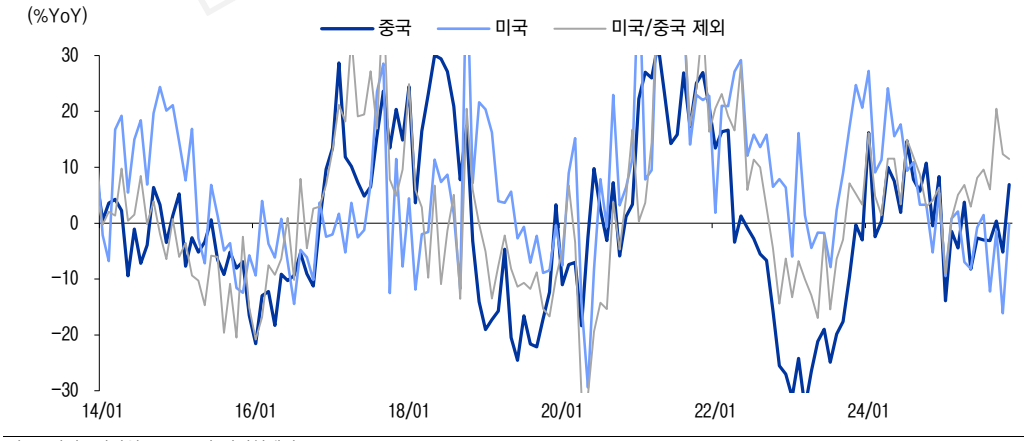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국가별 수출 기여도. 반등한 중국향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수출은 견인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非미국/중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